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보건학 석사학위 논문

국내 임금 근로자의 경제적 요인과
프리젠티즘의 관계:
2014년도 한국근로환경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안전보건 전공

하 룬

국내 임금 근로자의 경제적 요인과
프리젠티즘의 관계:
2014년도 한국근로환경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지도교수 박재범

이 논문을 보건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2월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안전보건 전공

하 룬

하륵의 보건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박재범 인

심사위원 이경종 인

심사위원 이순영 인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

2018년 12월 12일

감사의 말씀

보건 대학원에 입학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수업을 들었고 공부도 하였지만 논문을 쓰는 과정 중에 스스로 공부하며 겪었던 시행착오 속에서 가장 크게 배우고 또 얻어갑니다.

좋은 학우들과 교수님들을 만나고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한 부족한 제가 논문을 완성할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언제나 저에게 힘이 되어 주는 아내 변정화에게 감사합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집에 늦게 들어가게 되었지만, 힘들다 내색하지 않고 지지해줘서 고맙습니다. 이제 두 돌을 앞두고 있는 사랑스러운 딸 하린이도 고맙다. 앞으로 더 많이 시간 갖고 놀자꾸나. 항상 체계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주시는 이경종 교수님, 박재범 교수님 감사합니다. 또한, 예심과 본심에서 꼭 필요한 조언을 해주신 이순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갈피를 잡지 못했던 제 연구 방향을 바로잡아주신 정인철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입학부터 졸업까지 저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준 조윤식 선생님과 의국원 정재혁, 원구연, 최성욱 선생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언제나 뒤에서 함께 기도해주신 은혜마을 교회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 논문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항상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룬 올림

국내 임금 근로자의 경제적 요인과 프리젠티즘의 관계:

2014 년도 한국근로환경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직장 내 건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는 프리젠티즘(presenteeism)에 대한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선행 연구들을 통해 프리젠티즘의 위험인자로서 개인적, 직업적 요인들이 밝혀져 왔다. 주관적인 사회 경제적 지위가 객관적인 사회 경제적 지위보다 더 영향력 있고 건강상태를 잘 반영한다는 연구가 있으나, 프리젠티즘과의 관계는 연구된 바 없다. 또한, 국내 근로자들의 경제적 요인과 프리젠티즘과의 관계 또한 연구된 바 없다.

이번 연구에서는 2014 년 실시된 제 4 차 근로환경조사를 이용하여 근로자들의 개인적, 직업적 특성을 통제하여 국내 임금근로자에서의 경제적 요인과 프리젠티즘의 연관성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가계 경제 상황과 프리젠티즘의 관계에서는 가계 경제 상황에 문제가 있을 수록 프리젠티즘의 위험이 증가(비차비=1.44) 하였는데, 특히 남성(비차비=1.59)이 여성(비차비=1.30)보다 가계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득 기여도와 프리젠티즘의 관계에서는 남성에서 주 소득원인 경우 프리젠티즘의 위험이 증가하였다. 월 소득과 프리젠티즘의 관계에서는 월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프리젠티즘의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성별에 따라 층화하여 분석한 후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졌다.

본 연구 결과, 개인적, 직업적 특성뿐만 아니라, 월 소득, 소득 기여도의 경제적 요인을 보정한 후에도 가계 경제 상황에 문제가 있을수록 프리젠티즘의 위험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프리젠티즘의 일 수, 원인에 대한 추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가계 경제 상황을 비롯한 경제적 문제가 있는 근로자들의 프리젠티즘을 줄이기 위한 논의 및 회사 및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어: 가계 경제 상황, 프리젠티즘, 월 소득, 주관적 경제상태, 소득 기여도



차 례

국문요약	i
차례	iii
그림차례	iv
표차례	v
I. 서론	1
A. 연구의 필요성	1
B. 연구의 목적	4
II. 연구방법	5
A. 연구설계	5
B. 연구대상	6
C. 변수의 정의 및 측정도구	7
D. 자료분석방법	9
III. 연구결과	10
A.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0
B.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프리젠티즘 유무	12
C. 경제적 요인과 프리젠티즘의 관계	14
IV. 고찰	17
V. 결론	20
참고문헌	21
부록	25
ABSTRACT	26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모형	5
보충 그림 1. 연구 대상자 선정	25



표 차례

표 1. 연구 대상자들의 분포 및 프리젠티즘 유무 13

표 2. 성별과 경제적 요인에 따른 프리젠티즘의 비차비 15

표 3-1. 월 소득과 가계 경제 상황, 소득기여도에 따른 프리젠티즘의 비차비
(남성) 16

표 3-2. 월 소득과 가계 경제 상황, 소득기여도에 따른 프리젠티즘의 비차비
(여성)..... 16

보충 표 1. 연구 대상자들의 직종 분포 및 프리젠티즘 유무.....26

I.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 이상을 직장에서 보내고 있다. 직장 내의 건강의 중요성 역시 커지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는 지표 중 하나인 프리젠티즘(presenteeism)에 대한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연구자들에 따라 프리젠티즘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내려져있는데, Kivimaki 등(2005)은 건강하지 않지만 병·결근이 없는 상태로 정의하였고, Aronsson 등(2000)은 건강하지 않음을 느끼지만 출근하는 것으로, Evans(2004), Johansson 등(2004)은 건강하지 않거나 일반적으로 결근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출근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Turpin 등(2004)은 건강문제로 인하여 직장에서 생산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Hummer 등(2002)은 건강문제 또는 다른 방해요인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생산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프리젠티즘과 건강 문제 사이에는 많은 연구가 있었다. 관상 동맥 질환(Kivimaki, 2005)이나 미래 병가 발생(Bergstöm, 2009)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유급 병가가 있어서 프리젠티즘이 적을 경우 직업 관련 부상이 감소(Asfaw, 2012)한다는 연구가 있었다. 프리젠티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또한 크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작업 생산성의 감소 비용(Lost productive time)이 연간 1,500 억 달러에 이르며(Stewart, 2003), 두통으로 인한 프리젠티즘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산성이 89%까지 감소한다(Goetzel, 2004)는 연구도 있었다.

프리젠티즘의 위험인자로 고령(Medibank, 2011), 우울증 등의 정신 질환(Stewart, 2003)을 포함한 급·만성 질환(Burton 등, 2004)이 있으며, 직업적 요인으로는 직무 불안정성(Heponiemi 등, 2010; Virtanen 등, 2003), 높은 직무 스트레스(Ashby and Mahdon, 2010; 유인실 등, 2012; 정문희 등, 2007), 높은 직무 요구도(Demerouti 등, 2009), 낮은 직무 만족도(Caverley, 2007), 차별 경험(조윤식 등, 2016) 등이 알려져 있다. 프리젠티즘과 경제적 요인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는 Aronsson 등(2000)의 연구에서 높은 프리젠티즘 위험을 가진 직업이 주로 월 소득이 적은 직업이라는 것, Hansen (2008)의 연구에서 시급이 많은 군에서 프리젠티즘이 덜 발생하며, Miraglia 등(2015)이 진행했던 메타 분석 결과 프리젠티즘과 월 소득은 약한 관련성을 가지고 개인적인 경제 상태가 더 연관된다는 연구가 있었다.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SSS,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란 개인이 그들이 속해있다고 생각하는 사회·경제적 위치로, 건강과 관련된 지표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심박동수, 수면 잠복기, 코티솔 농도 등과 관련되고(Adler 등, 2000),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점수와도 관계가 있으며(Nobles 등, 2013),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정한 후에도 대사 증후군,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와 관련되며(Manuck 등, 2010),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객관적인 사회 경제적 지위보다 더 일관되고 강하고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다(Adler 등 2000; Singh-Manoux 등, 2005; Operario, 2004). 그러나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와 프리젠티즘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었다.

국내 연구 중에선 경제적 요인과 프리젠티즘의 관계를 밝힌 연구가 없었고, 주로 직무 스트레스(권미숙 등, 2011; 권민 등, 2010; 유인실 등, 2012), 고용 불안정성(김자영 등, 2016; 전성환 등, 2014), 근무시간(전성환 등, 2014), 직장 내 사회 심리적 요인(조윤식 등, 2016)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었다. 또한, 간호사(권민 등, 2010; 권미숙 등, 2011), 물리치료사(배영현 등, 2012), 미용사(이진화 등, 2016) 등의 제한적인 직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한국 근로환경조사를 이용하여 국내 근로자들의 프리젠티즘과 경제적 요인과의 연관성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B.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2014 년 시행된 제 4 차 근로환경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임금근로자의 근로자들의 경제적 요인과 프리젠티즘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개인적, 직업적 특성 및 경제적 요인에 따른 프리젠티즘의 위험도의 차이가 있는 지 분석한다.

둘째, 경제적 요인(월 소득, 가계 경제 상황, 소득 기여도)과 프리젠티즘의 연관성을 규명한다.

셋째, 성별에 따라 경제적 요인과 프리젠티즘의 연관성이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본다.

II. 연구방법

A. 연구설계

본 연구는 2014 년 시행된 제 4 차 근로환경조사(KWCS, Korean Working Condition Survey)를 이용하여 경제적 요인과 프리젠티즘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이다. 이 연구의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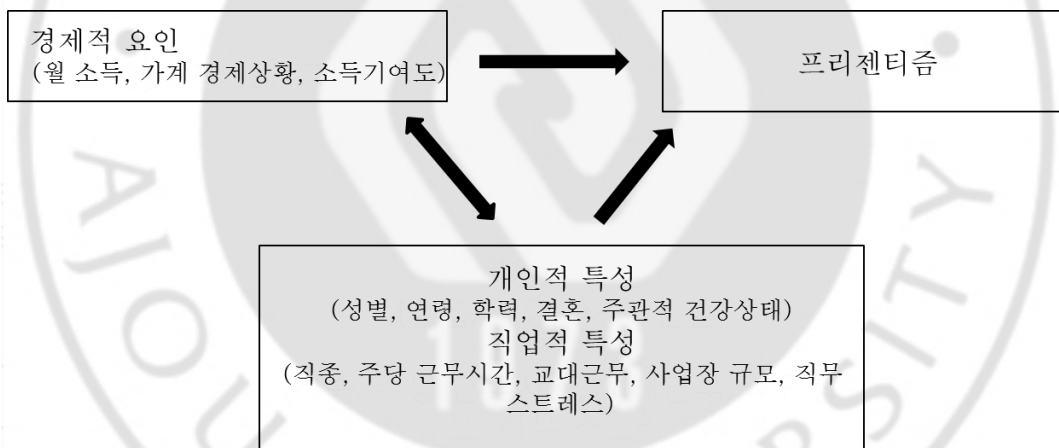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B. 연구대상

한국 근로환경 조사는 유럽 근로환경조사(EWCS, European Working Condition Survey) 및 영국 노동력조사(LFS, Labour Force Survey)를 벤치마킹한 조사로, 2006년(1차)에 처음 실시된 이후 2010년(2차), 2011년(3차), 2014년(4차)에 걸쳐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근로형태, 고용형태, 직종, 업종, 위험요인 노출, 고용안정 등의 업무환경을 파악하여 근로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적합한 안전 보건 정책을 수립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4차 근로환경조사 대상자 50,007명 중 20세 이상의 근로자(20세 미만 361명 제외)중에서 종사상 지위로 임금근로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3,609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3,217명, 무급 가족 종사자 2,401명, 그 외 종사자 27명 제외), 계약 형태 상으로는 상용근로자(임시 근로자 5,871명, 일용 근로자 2,521명 제외)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직업 분류 중 군인(76명)을 제외하였고, 경제적 요인과 프리젠티즘 유무를 비롯한 모든 문항에 누락이 있는 대상자를 제외하여 총 19,212명을 본 연구의 최종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C. 변수의 정의 및 측정도구

1. 프리젠티즘

프리젠티즘은 “지난 12 개월 동안 몸이 아픈데도 나와서 일은 한 적이 있습니까?” 의 질문에 ‘있다’ 라고 응답한 경우 프리젠티즘이 있음으로, ‘없음’으로 응답한 경우 프리젠티즘이 없음으로 정의하였다. ‘아프지 않았다’, ‘모름/무응답’, ‘거절’ 이라 응답한 경우 결측값으로 처리하여 분석에 사용하지 않았다.

2. 경제적 요인

대상자의 경제적 요인으로는 가계 경제상황, 월 소득, 소득 기여도를 조사하였다. 가계 경제 상황은 “전반적으로 귀 닉의 한 달 총소득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매우 쉽다’, ‘대체로 쉽다’, ‘약간 쉽다’ 라고 응답한 경우 문제 없음으로, ‘약간 어렵다’, ‘대체로 어렵다’, ‘매우 어렵다’ 라고 응답한 경우 문제 있음으로 정의하였다. ‘모름/무응답’, ‘거절’ 이라 응답한 경우 결측값으로 처리하여 분석에 사용하지 않았다. 월 소득은 150 만원 미만, 150~249 만원, 250~399 만원, 400 만원 이상으로 분류하였고, 소득 기여도는 “귀하는 가구원 중 가구소득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는 분입니까?” 의 질문에 ‘예’, ‘동등하게 기여함’ 이라고 응답한 경우 주 소득원, ‘아니오’ 라고 응답한 경우 부 소득원이라 정의하였다.

3. 개인적 특성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대, 혼인상태, 학력을 조사하였다. 성별은 남성, 여성으로 구분하였고, 연령대는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혼인상태는 기혼, 미혼으로 구분하였다. 학력은 전문대 이상, 고졸 이하로 분류하였다. 주관적인 건강 상태는 “귀하의 건강상태는 전반적으로 어떠합니까?” 의 질문에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라고 응답한 경우 좋음으로,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경우 보통으로, ‘나쁜 편이다’, ‘매우 나쁘다’ 라고 응답한 경우 나쁨으로 정의하였다.

4. 직업적 특성

대상자의 직업적 특성으로 직종, 주당 근무시간, 교대근무 여부, 사업장 규모, 직무스트레스를 조사하였다. 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11 가지 직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 전문가, 사무 종사자는 ‘사무직 및 전문직’으로,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는 ‘서비스 및 판매직’으로,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는 ‘육체 노동자’로 분류하였다. 군인 및 ‘모름/무응답’, ‘거절’ 이라 응답한 경우 결측값으로 처리하여 분석에 사용하지 않았다. 주당 근무 시간은 40 시간 미만, 40~51 시간, 52 시간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교대근무 여부는 함, 하지 않음으로 구분하였고, 사업장 규모는 30 인 미만, 30~299 명, 300 명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직무 스트레스는 “업무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라는 항목에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가끔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경우 높음으로,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경우는 낮음으로 정의하였다.

D.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를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for windows version 22.0(SPSS INC: Chicago, IL, USA; 2013)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빈도분석을 통해 연구 대상자들의 개인적·직업적 특성 및 경제적 요인들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둘째, 개인적·직업적 특성 및 경제적 요인들에 따른 프리젠티즘 유병율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경제적 요인과 프리젠티즘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그에 따른 비차비를 구하였다. Model 1에서는 단변량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Model 2에서는 성별, 연령대, 혼인상태, 학력, 주관적 건강상태, 직종, 주당 근무시간, 교대근무 여부, 사업장 규모, 직무 스트레스, 가계 경제상황, 월 소득, 소득 기여도를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A.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는 총 19,212 명 이었고, 빈도분석을 통해 개인적·직업적 특성 및 경제적 요인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10,559 명(55.0%), 여성이 8,653 명(45.0%) 이었다. 연령대로는 20 대가 2,344 명(12.2%), 30 대가 5,768 명(30.0%), 40 대가 6,140 명(32.0%), 50 대가 3,752 명(19.5%), 60 대 이상이 1,208 명(6.3%) 였다. 혼인 상태는 기혼이 15,336 명(79.8%), 미혼이 3,876 명(20.2%) 이었으며, 학력은 고졸 이하가 7,718 명(40.2%), 전문대 이상이 11,494 명(59.8%) 였다. 직종에 따라서는 사무직 및 전문직이 9,985 명(52.1%), 서비스 및 판매직이 4,346 명(22.7%), 육체 노동자가 4,816 명(25.2%) 였다. 주당 근무시간은 40 시간 미만 근무가 1,020 명(5.3%), 40~51 시간 근무가 14,621 명(76.1%), 52 시간 이상 근무가 3,571 명(18.6%) 였다. 교대근무는 하는 경우 2,028 명(10.6%), 하지 않는 경우 17,184 명(89.4%) 였다. 사업장 규모에 대하여 30 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가 10,624 명(55.3%), 30 ~299 인의 사업장인 경우 6,545 명(34.1%), 300 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2,043 명(10.6%) 였다.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15,056 명(78.4%), 낮은 경우 4,156 명(21.6%) 이었다. 월 소득의 경우 150 만원 미만을 받는 대상자가 3,326 명(17.3%), 150~249 만원이 7,300 명(38.0%), 250~399 만원이 6,405 명(33.3%), 400 만원 이상이 2,181 명(11.4%) 였다. 소득 기여도에 대해서는 주 소득원인 경우 13,288 명(69.2%), 부 소득원인 경우 5,924 명(30.8%) 이었으며,

가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문제 없음 10,394 명(54.1%), 문제 있음이 8,818 명(45.9%) 였다(표 1).



B.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프리젠티즘 유무

프리젠티즘이 있었던 대상자는 4,598 명으로 전체 대상자 중 23.9% 였다. 카이 제곱 분석을 통해 연구 대상자의 개인적·직업적 특성 및 경제적 요인에 따른 프리젠티즘 비율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성별의 경우 남성(21.3%) 보다 여성(27.1%) 에서 프리젠티즘의 비율이 높았고, 연령대에서는 40 대(26.0%) 에서 가장 높았으며, 혼인 상태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711$). 학력의 경우 고졸 이하(26.1%)에서 전문대 이상(22.5%) 보다 높았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 경우(51.6%)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직종의 경우 사무직 및 전문직(22.0%) 에서 서비스 및 판매직(26.7%), 육체 노동자(25.5%) 보다 낮은 프리젠티즘의 비율을 보였다. 주당 근무시간의 경우 40~51 시간(22.2%)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교대근무의 경우 한다(27.5%)에서 하지 않는다(23.5%) 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사업장 규모에서는 300 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20.7%), 그보다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30 인 미만: 24.5%, 30~299 인: 24.1%)보다 낮은 비율을 보였다.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25.4%), 낮은 경우(18.5%)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월 소득에 대해서는 150 만원 미만(25.6%)에서 가장 높고, 400 만원 이상(22.0%)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소득 기여도의 경우 주 소득원인 경우(23.6%)에서 부 소득원(24.7%) 보다 낮은 프리젠티즘의 비율을 보였고, 가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문제 있음(28.4%)에서 문제 없음(20.1%) 보다 높은 프리젠티즘의 비율을 보였다(표 1).

표 1. 연구 대상자들의 분포 및 프리젠티즘 유무

	N (%)	프리젠티즘		p-값
		있음 N (%)	없음 N (%)	
전체	19,212 (100)	4,598 (23.9)	14,614 (76.1)	
성별				
남성	10,559 (55.0)	2,252 (21.3)	8,307 (78.7)	<0.001
여성	8,653 (45.0)	2,346 (27.1)	6,307 (72.9)	
연령(세)				
20-29	2,344 (12.2)	484 (20.6)	1,860 (79.4)	<0.001
30-39	5,768 (30.0)	1,315 (22.8)	4,453 (77.2)	
40-49	6,140 (32.0)	1,599 (26.0)	4,541 (74.0)	
50-59	3,752 (19.5)	907 (24.2)	2,845 (75.8)	
≥60	1,208 (6.3)	293 (24.3)	915 (75.7)	
혼인상태				
기혼	15,336 (79.8)	3,683 (24.0)	11,653 (76.0)	0.598
미혼	3,876 (20.2)	915 (23.6)	2,961 (76.4)	
학력				
고졸 이하	7,718 (40.2)	2,012 (26.1)	5,706 (73.9)	<0.001
전문대 이상	11,494 (59.8)	2,586 (22.5)	8,908 (77.5)	
주관적 건강상태				
좋음	14,826 (77.2)	2,967 (20.0)	11,859 (80.0)	<0.001
보통	3,931 (20.5)	1,396 (35.5)	2,535 (64.5)	
나쁨	455 (2.4)	235 (51.6)	220 (48.4)	
직종				
사무직 및 전문직	9,985 (52.1)	2,200 (22.0)	7,785 (78.0)	<0.001
서비스 및 판매직	4,346 (22.7)	1,160 (26.7)	3,186 (73.3)	
육체 노동자	4,816 (25.2)	1,230 (25.5)	3,586 (74.5)	
주당 근무시간				
<40 시간	1,020 (5.3)	274 (26.9)	746 (73.1)	<0.001
40-51 시간	14,621 (76.1)	3,245 (22.2)	11,376 (77.8)	
≥52 시간	3,571 (18.6)	1,079 (30.2)	2,492 (69.8)	
교대근무				
함	2,028 (10.6)	558 (27.5)	1,470 (72.5)	<0.001
안함	17,184 (89.4)	4,040 (23.5)	13,144 (76.5)	
사업장 규모 (명)				
<30	10,624 (55.3)	2,600 (24.5)	8,024 (75.5)	0.001
30-299	6,545 (34.1)	1,576 (24.1)	4,969 (75.9)	
≥300	2,043 (10.6)	422 (20.7)	1,621 (79.3)	
직무스트레스				
높음	15,056 (78.4)	3,831 (25.4)	11,225 (74.6)	<0.001
낮음	4,156 (21.6)	767 (18.5)	3,389 (81.5)	
월 소득(만 원)				
<150	3,326 (17.3)	853 (25.6)	2,473 (74.4)	<0.001
150-249	7,300 (38.0)	1,782 (24.4)	5,518 (75.6)	
250-399	6,405 (33.3)	1,484 (23.2)	4,921 (76.8)	
≥400	2,181 (11.4)	479 (22.0)	1,702 (78.0)	
소득 기여도				
주 소득원	13,288 (69.2)	3,136 (23.6)	10,152 (76.4)	0.055
부 소득원	5,924 (30.8)	1,462 (24.7)	4,462 (75.3)	
가계 경제 상황				
문제 없음	10,394 (54.1)	2,094 (20.1)	8,300 (79.9)	<0.001
문제 있음	8,818 (45.9)	2,504 (28.4)	6,314 (71.6)	

C. 경제적 요인과 프리젠티즘의 관계

경제적 요인과 프리젠티즘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그에 따른 비차비를 구하였다.

성별과 월 소득간의 상호작용($r_s = -0.480, p < 0.001$) 및 성별과 소득기여도간의 상호작용($r_s = 0.418, p < 0.001$)을 제거하기 위하여 성별에 따라 층화하여 분석하였다. Model 1에서는 단변량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고, Model 2에서는 개인적 특성(연령, 혼인상태, 학력, 주관적 건강상태), 직업적 특성(직종, 주당 근무시간, 교대 근무, 사업장 규모, 직무 스트레스), 경제적 요인(월 소득, 가계 경제 상황, 소득 기여도)을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남성에서는 월 소득과 프리젠티즘의 관계에서 400 만원 이상을 참조 집단으로 하였을 때, Model 1에서는 비차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Model 2에서는 월 소득이 감소할수록 비차비가 감소(250~399 만 원: 0.89, 150~249 만 원: 0.89, 150 만 원 미만: 0.71)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150 만원 미만의 소득군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계 경제 상황과 프리젠티즘의 관계에서는 문제 없음을 참조 집단으로 하였을 때, 문제 있음의 경우 두 모델 모두에서 유의하게 비차비가 증가(Model 1: 1.81, Model 2: 1.59)하였다. 소득 기여도와 프리젠티즘의 관계에서는 부 소득원을 참조 집단으로 하였을 때, 주 소득원에서 비차비가 증가(Model 1: 1.38, Model 2: 1.24)하였다.

여성에서는 월 소득과 프리젠티즘의 관계에서 두 모델 모두 월 소득이 감소할수록 비차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다. 가계 경제 상황과 프리젠티즘의 관계에서는 문제 있음의 경우 두 모델

모두에서 유의하게 비차비가 증가(Model 1: 1.38, Model 2: 1.30)하였으며, 소득 기여도와 프리젠티즘의 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2).

표 2. 성별과 경제적 요인에 따른 프리젠티즘의 비차비

	남성		여성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OR (95% CI)	OR (95% CI)	OR (95% CI)	OR (95% CI)
월 소득(만 원)				
<150	1.04 (0.85-1.28)	0.71 (0.54-0.92)	0.94 (0.73-1.20)	0.85 (0.64-1.11)
150-249	1.05 (0.92-1.22)	0.89 (0.76-1.06)	0.93 (0.73-1.18)	0.88 (0.68-1.14)
250-399	1.03 (0.90-1.18)	0.89 (0.77-1.02)	1.02 (0.79-1.32)	1.02 (0.79-1.33)
≥400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가계 경제 상황				
문제 없음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문제 있음	1.81 (1.65-1.99)	1.59 (1.44-1.75)	1.38 (1.25-1.51)	1.30 (1.18-1.44)
소득 기여도				
주 소득원	1.38 (1.18-1.63)	1.24 (1.04-1.48)	1.07 (0.97-1.17)	1.00 (0.90-1.12)
부 소득원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Model 1: Crude model;

Model 2: 연령, 혼인상태, 학력, 주관적 건강상태, 직종, 주당 근무시간, 교대근무, 사업장 규모, 직무스트레스, 월 소득, 가계 경제상황, 소득 기여도를 보정함

월 소득과 소득 기여도간의 상호작용($r_s = -0.325, p < 0.001$)을 제거하기 위해 월 소득에 따라 추가로 층화하여 분석하였다. 남성에서는 가계 경제 상황에 문제가 있을수록 프리젠티즘의 비차비는 증가하였고, 소득 기여도에 따라서는 주 소득원일 경우 150 만원 이상의 소득 군에서 비차비가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400 만원 이상의 소득 군에서 주 소득원인 경우에서 프리젠티즘의 비차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표 3-1).

여성에서도 가계 경제 상황에 문제가 있을수록 프리젠티즘의 비차비는 증가하였으나, 400 만원 이상의 소득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소득

기여도에 따라서는 250 만원 이상의 소득 군에서 주 소득원일수록 프리젠티즘의 비차비가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다(표 3-2).

표 3-1. 월 소득과 가계 경제 상황, 소득기여도에 따른 프리젠티즘의 비차비(남성)

	월 소득 (만 원)							
	<150		150-249		250-399		400≤	
	OR	(95% CI)	OR	(95% CI)	OR	(95% CI)	OR	(95% CI)
가계 경제 상황								
문제 없음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문제 있음	1.33	(0.89-1.98)	1.37	(1.15-1.65)	1.68	(1.45-1.94)	1.87	(1.47-2.38)
소득기여도								
주 소득원	0.99	(0.61-1.61)	1.24	(0.95-1.63)	1.17	(0.86-1.58)	2.32	(1.16-4.62)
부 소득원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표 3-2. 월 소득과 가계 경제 상황, 소득기여도에 따른 프리젠티즘의 비차비(여성)

	월 소득 (만 원)							
	<150		150-249		250-399		400≤	
	OR	(95% CI)	OR	(95% CI)	OR	(95% CI)	OR	(95% CI)
가계 경제 상황								
문제 없음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문제 있음	1.19	(0.98-1.43)	1.35	(1.17-1.56)	1.33	(1.05-1.68)	1.54	(0.84-2.82)
소득기여도								
주 소득원	0.96	(0.78-1.20)	0.99	(0.84-1.16)	1.15	(0.91-1.45)	1.14	(0.66-1.99)
부 소득원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주관적 건강상태, 직종, 주당 근무시간, 교대근무, 사업장 규모, 직무스트레스, 가계경제상황, 소득 기여도를 보정함

IV. 고찰

본 연구는 제 4 차 한국근로환경조사를 이용하여 국내 임금근로자의 경제적 요인과 프리젠티즘과의 관계를 알아본 단면 연구이다.

연구를 통하여 개인적, 직업적 특성을 보정하고 월 소득, 소득 기여도, 가계 경제 상황 이라는 경제적 요인이 프리젠티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가계 경제 상황과 프리젠티즘의 관계에서는 가계 경제 상황에 문제가 있을 수록 프리젠티즘의 위험이 증가(비차비=1.44) 하였는데, Operario 등(2004)이 주관적인 사회 경제적 상태가 높을 경우 사회 심리적 요인이 건강에 주는 악영향을 줄인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Poh 등(2017)에 의하면 가계 경제 상황에 문제가 있을 경우 금융 스트레스(financial stress)가 증가하며 직장 내 위험에 노출이 증가한다. 이러한 기전에 의하여 프리젠티즘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성별로 층화하여 분석하였을 때 남성, 여성 모두에서 가계 경제 상황과 프리젠티즘간에 유의한 관련이 있었으며, 남성(비차비= 1.59)이 여성(비차비=1.30)보다 가계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Gustafsson Sendén 등(2016)이 수행했던 프리젠티즘의 이유에 대한 연구에서 남성의 경우 ‘금전적 손실’ 때문에, 여성의 경우 ‘동료의 업무 부담’ 때문에 프리젠티즘이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국내 근로자의 프리젠티즘의 이유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으나, 남성에서 가계 부양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더 높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성별에 따른 가계 경제 상황이 프리젠티즘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월 소득에 따라 층화하여 분석하였을 때에도 모든 소득 군에서 가계 경제 상황이 문제 있을 경우 프리젠티즘의 위험이 증가하였다.

소득 기여도와 프리젠티즘과의 관계에서는 남성과 여성에서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우선 남성 근로자에서는 주 소득원일 경우 프리젠티즘의 비차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여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월 소득과 프리젠티즘의 관계에서는 월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프리젠티즘의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에 대한 이유를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근로자 개인의 월 소득이 가계 총 소득 및 자산 상태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Hahm (2013)에 의하면 건강 행태와 밀접한 금융 취약성(financial vulnerability)은 집값 상승 및 빚의 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데이터가 없었다. 해당년도 소득 분위와 순자산 분위가 일치하는 비중은 26.1~52.9%에 불과했다(통계청, 2014). 낮은 월 소득군에 비하여 높은 월 소득군에서 자산의 차이가 크고, 가계 경제 상황이 프리젠티즘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만들었을 것이다. 둘째, 성별에 따른 월 소득 분포의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남성의 경우 150 만 원 미만의 월 소득을 얻는 비율이 7.2%인 반면, 여성의 경우 29.7%에 달하며, 400 만원 이상의 월 소득을 얻는 남성이 17.3%이지만, 여성은 4.1%에 불과하다. 이는 성별에 따라 층화하여 분석한 후에는 월 소득과 프리젠티즘의 관계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졌다는 것을 통해 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기여도에서 주 소득원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50 만원 미만의 월 소득 군에서는 주 소득원이 46.4%에 불과하지만, 400 만원 이상의 월 소득 군에서는 89.2%에 달한다. 넷째, 이번 연구에서 측정되지 않았던 변수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 Aronsson(2000)은 의사와

교육직종과 같이 대체 가능성이 낮은 경우 프리젠티즘의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월 소득이 높은 근로자의 경우 직장 내에서 큰 역할 및 책임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높은 소득 군에서 프리젠티즘의 위험이 증가하는데 기여하였을 것이다.

본 연구의 약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단면적 연구이기 때문에 프리젠티즘과 경제적 요인들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직무 만족도, 동료·상사의 지지, 감정 노동, 직무 요구도, 직무 긴장도 등의 다양한 직장 내 사회심리적 요인들이 프리젠티즘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 알려져 있으나 이런 모든 변수를 고려하진 않았다는 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급·만성 질환 유무나 흡연, 음주에 관련된 데이터는 4차 근로환경 조사에서 얻을 수 없었다.

본 연구의 강점으로 근로환경 조사를 이용하여 기존 연구들에 비해 큰 표본 수를 확보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 근로자에게 일반화 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진다는 점이 있다. 또한 유럽에서 시행된 연구들과 달리, 개인별 월 소득에 대한 데이터를 얻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였다. 가계 경제 상황과 월 소득에 따른 프리젠티즘의 관계를 밝힌 국내 최초의 연구라는 점 역시 이 연구의 강점으로 들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프리젠티즘 유무에 더하여 프리젠티즘 일 수를 결과변수로서 사용한다면 다양한 요인들과의 양-반응 관계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외 연구들에서 밝힌 것과 같이 국내 근로자들도 성별, 월 소득에 따라 프리젠티즘의 원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프리젠티즘의 원인에 대한 설문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제 4 차 한국 근로환경조사를 활용하여 국내 임금 근로자의 경제적 요인들과 프리젠티즘의 연관성을 알아본 연구이다. 연구를 통하여 개인적, 직업적 특성을 보정한 후에도 경제적 요인이 프리젠티즘에 미치는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프리젠티즘을 줄이기 위해서는 알려진 위험인자들뿐 만 아니라 가계 경제 상황을 포함한 경제적 문제가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관심과 프리젠티즘의 원인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며, 재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미숙, 최연희, 박금화. 임상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프리젠티즘. 한국간호학회지 2011;20(2): 163-171
- 권민, 김순례. 산업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프리젠티즘.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2010;19(2): 159-169
- 배영현, 이종훈, 유현주 등. 물리치료사의 업무관련성 근골격계 통증, 삶의 질과 프리젠티즘의 관계. 한국산업위생학회지 2012;22(1):61-72.
- 유인실, 정대순, 김인아, 노재훈, 원종욱. 직무스트레스, 사회 심리적 건강수준과 프리젠티즘 및 결근의 관련성: 철도 근로자를 중심으로.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 2012;24(3)
- 이진화, 이복임. 미용사의 정신건강 및 프리젠티즘에 영향 미치는 물리적, 심리사회적 작업환경 요인.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2016;25(4):290-299
- 정문희, 이영미, 荒木田美香子. 중소기업사업장 근로자의 스트레스와 프리젠티즘의 관계. 대한산업의학회지 2007;19(1):47-55.
- 조운식, 박재범, 이경중, 민경복, 백철인. 국내 근로자의 프리젠티즘과 직장 내 사회심리적 요인의 관련성 Annal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2016;28:41
- 통계청, 2014년 가계 금융·복지 조사 결과

Adler N.E., Epel E.S., Castellazzo G., Ickovics J.R., Relationship of subjective and objective social status with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functioning: preliminary data in healthy white women. *Health Psychol*, 2000;19(6): 586-592

Aronsson, G., Gustafsson, K., Dallner, M. Sick but yet at work. An empirical study of sickness presenteeism.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2000; 54(7): 502–509.

Asfaw, A., Pana-Cryan R., Rosa R., Paid sick leave nonfatal occupational injuries. *Am J Public Health*, 2012;102(9): e59-64.

Ashby K., Mahdon, M., Why do employees come to work when ill? AXA PPP healthcare; 2010

Bergström G, Bodin L, Hagberg J et al. Sickness presenteeism today, sickness absenteeism tomorrow? A prospective study on sickness presenteeism and future sickness absenteeism. *J Occup Environ Med*. 2009;51(6):629-38.

Burton W.N., Pransky G, Conti D.J., et al. The association of medical conditions and presenteeism. *J Occup Environ Med*, 2004;46 Suppl6: S38-45.

Caverley N., Cunningham J.B., Macgregor J.N., Sickness presenteeism, sickness absenteeism, and health following restructuring in a public service organization.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2007;44:304-319.

Demerouti E., Pascale M., Blanc L., Bakker A.B., Schaufeli W.B., Hox J. Present but sick: a three-wave study on job demands, presenteeism and burnout. *Carrer Development International* 2008;14(1):2009.

Evans, C. J. (2004). Health and work productivity assessment: State of the art or state of flux? *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2004; 46 Suppl 6: S3–S11.

Goetzel, R. Z., Long, S. R., Ozminkowski, R. J., et al. Health, absence, disability, and presenteeism cost estimates of certain physical and mental health conditions affecting U.S.

employees. *J Occup Environ Med*, 2004; 46(4): 398–412.

Gustafsson Sendén M., Schenck-Gustafsson K., Fridner A. Gender differences in Reasons for Sickness Presenteeism - a study among GPs in a Swedish health care organization *Annal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2016; 28:50.

Hahm, J.H., Shin, H.S., & Shin, K. Noncore bank liabilities and financial vulnerability. *Journal of Money*, 2013; 45(S1), 3-36.

Hansen, C.D., Andersen, J.H. Going ill to work- what personal circumstances, attitudes and work-related factors are associated with sickness presenteeism? *Social Science and Medicine*, 2008; 67:956-964

Heponiemi T., Elovainio M., Pentti J., et al. Association of contractual and subjective job insecurity with sickness presenteeism among public sector employees. *J Occup Environ Med*, 2010; 52(8): 830-835

Hummer, J., Sherman, B., Quinn, N. Present and unaccounted for. *Occupational Health & Safety*, 2002; 71(4), 40–44, 100.

Jeon S.H., Leem L.H., Park S.G., et al. Association among Working Hours, Occupational Stress, and Presenteeism among Wage Workers. *Ann Occup Environ Med* 2014; 26(6)

Johansson, G., & Lundberg, I. Adjustment latitude and attendance requirements as determinants of sickness absence or attendance. Empirical tests of the illness flexibility model. *Social Science & Medicine*, 2004; 58(10), 1857–1868.

Kim J.Y., Lee J, Muntaner C., Kim S.S., Who is working while sick? Nonstandard employment and its association with absenteeism and presenteeism in South Korea. *Int Arch Occup Environ Health*. 2016; 89(7):1095-101

Kivimäki, M., Head, J., Ferrie, J. E., et al. Working while ill as a risk factor for serious coronary events: The Whitehall II stud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2005; 95(1): 98–102.

Manuck S.B., Phillips J.E., Gianaros P.J., Flory J.D., Muldoon M.F.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and presence of the metabolic syndrome in midlife community volunteers. *Psychosom Med.* 2010;72(1):35-45

Medibank, 2011 Sick at Work: The cost of presenteeism to your business and the economy.

Miraglia M., Johns G., Going to Work III: A Meta-analysis of the Correlates of Presenteeism and a Dual-Path Model.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2016;21(3): 261-283.

Nobles J., Weintraub M.R., Adler N.E.,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and health: relationships reconsidered. *Soc Sci Med* 2013;82:58-66

Operario, D., Adler, N. E., & Williams, D. R. Subjective Social Status: Reliability and Predictive Utility for Global Health. *Psychology and Health* ,2004; 19 (2): 237-246

Poh, L.M., & Sabri, M.F. Review of Financial Vulnerability Studies. *Archives of Business Research* 2017;5(2): 127-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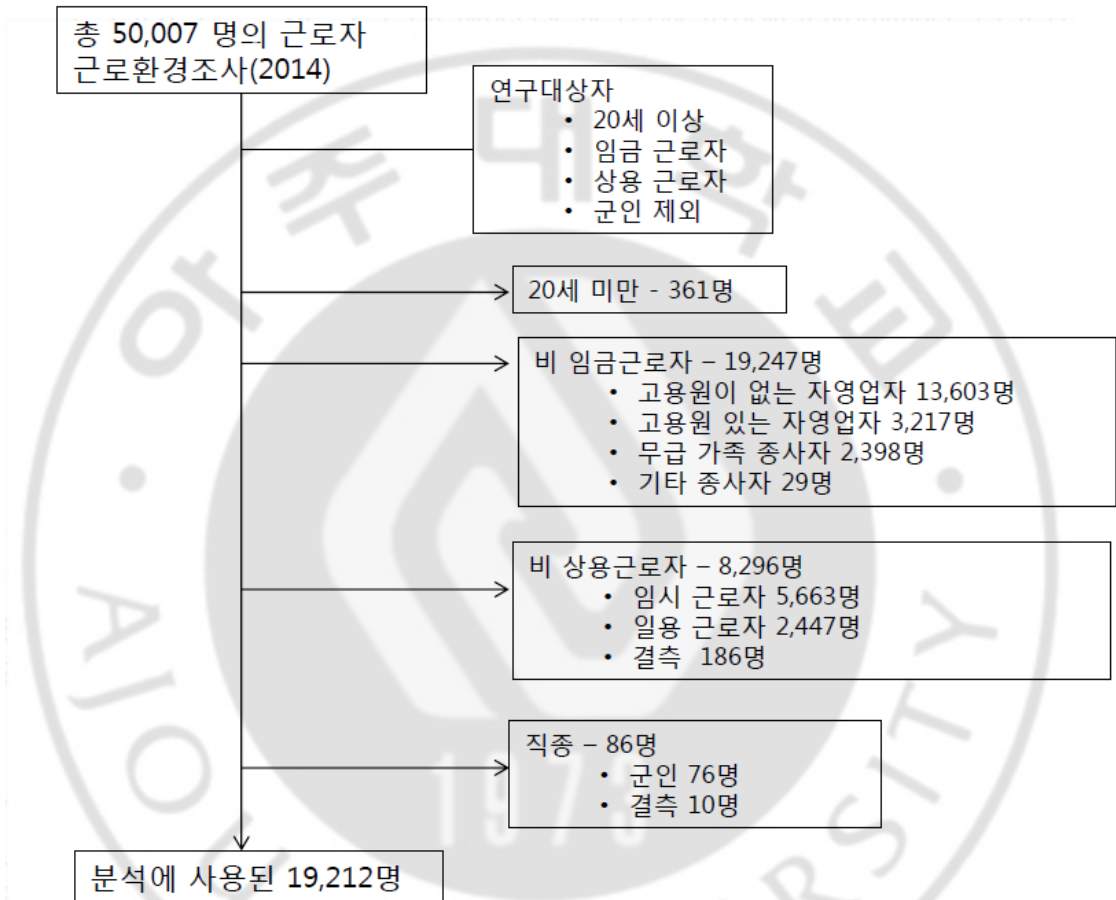
Singh-Manoux A1, Hillsdon M, Brunner E, Marmot M. Effects of physical activity on cognitive functioning in middle age: evidence from the Whitehall II prospective cohort study. *Am J Public Health.* 2005;95(12):2252-8.

Stewart W.F., Ricci J.A., Chee E., et al. Lost productive time and cost due to common pain conditions in the US workforce. *JAMA*, 2003; 290(18): 2443-2454.

Turpin, R. S., Ozminkowski, R. J., Sharda, C. E., et al.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Stanford Presenteeism Scale. *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2004; 46(11), 1123–1133.

Virtanen M., Kivimaki M., Elovainio M., et al. From insecure to secure employment: changes in work, health, health related behaviours, and sickness absence. *Occup Environ Med*, 2003; 60(12): 948-953

부록



보충 그림 1. 연구 대상자 선정

각 문항 별 결측 인원은 다음과 같다. 프리젠티즘 문항 - 971명
 소득 기여도 문항 - 256명, 월 소득 문항 - 432명, 가게 경제 상황 - 461명, 주관적
 건강 상태 - 321명, 사업장 규모 문항 - 356명, 교대 근무 문항 - 208명, 주당
 근무시간 문항 - 90명, 학력 문항 - 147명, 직무 스트레스 문항 - 132명

보충 표 1. 연구 대상자들의 직종 분포 및 프리젠테이션 유무

	N (%)	프리젠테이션		p-값
		있음	없음	
		N (%)	N (%)	
전체	19,212 (100)	4,598 (23.9)	14,614 (76.1)	
직종				
사무직 및 전문직	9,985 (52.1)	2,200 (22.0)	7,785 (78.0)	<0.001
서비스 및 판매직	4,346 (22.7)	1,160 (26.7)	3,186 (73.3)	
육체 노동자	4,816 (25.2)	1,230 (25.5)	3,586 (74.5)	
직종				
관리직	514 (2.7)	94 (18.3)	420 (81.7)	<0.001
전문가	1,977 (10.3)	535 (27.1)	1,442 (72.9)	
기술공 및 준전문가	1,169 (6.1)	289 (24.7)	880 (75.3)	
사무종사자	6,325 (32.9)	1,282 (20.3)	5,043 (79.7)	
서비스종사자	2,157 (11.2)	615 (28.5)	1,542 (71.5)	
판매 종사자	2,189 (11.4)	545 (24.9)	1,644 (75.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0 (0.2)	3 (10.0)	27 (90.0)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1,965 (10.2)	492 (25.0)	1,473 (75.0)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413 (7.4)	355 (25.1)	1,058 (74.9)	
단순 노무 종사자	1,408 (7.3)	380 (27.0)	1,028 (73.0)	
군인	65 (0.3)	8 (12.3)	57 (87.7)	

본 연구에서는 직종을 세 가지로 묶어서 분석에 사용하였는데, 이것과 비교하기 위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11종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이다. 사무직 및 전문직의 유병률(22.0%)과 비교하여 관리직, 사무 종사자는 낮은 프리젠테이션 유병률을,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는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서비스 및 판매직의 유병률(26.7%)과 비교하여 판매 종사자는 낮은 유병률을, 서비스 종사자는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육체 노동자에서는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를 제외하면, 유병률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ABSTRACT]

The association between economic factors and presenteeism: Using the 4th Korean Working Condition Survey (2014)

The importance of health in the workplace is growing, and research on presenteeism is also actively underway. Prior studies have identified personal and professional factors as risk factors for presentation. Although studies show that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is more influential and reflects health status than o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the relationship with presenteeism has not been studied.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factors and presentation of domestic workers has not been studied.

In this study, the 4th Korean Working Condition Survey conducted in 2014 was aimed at controlling the personal and professional characteristics of workers to find out the association between economic factors and presenteeism in domestic wage workers.

In the context of the household financial situation and the presenteeism, the more problematic the household financial situation, the more the risk of the presenteeism increased (OR=1.44), especially for men (OR=1.59) than women (OR=1.30). The relationship between monthly income and presenteeism tended to increase the risk of presentation in groups with higher monthly incomes, but after stratification and analysis by gender, statistical significance disappear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contribution and presenteeism, the risk increased for males as the main source of income. The relationship between monthly income and presentateeism tended to increase the risk of

presentation in high monthly income groups, but statistical significance disappeared after stratification and analysis by gender.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even after compensating economic factors for monthly income and income contributions, as well as personal and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the risk of presentation increases as there are problems with household financial situation.

Further research on the number and causes of presenteeism should be carried out, and discussions and efforts at the company and government level will be needed to reduce the presenteeism of workers with economic problems, including household financial situation.

Key Words: Financial situation, Presenteeism, Monthly income, Subjective economic status
Income contribution